

5252 여러분 히사시부리! (5/27 공지 - *)

다들 공모전 이후 시간을 알차게 보내구 있죠?



대학창의 발명대회와, 삼성 투모로우 솔루션
바랏가 곧입니다! d-2 군요

그냥 전달 드려도 되지만 요즘 PPT를 만들 기회가 없어서

떨어진 감 살릴 겸 만들어 보았습니다

고로 목차 같은거 없으니 끝까지

두눈 부릅뜨고 읽어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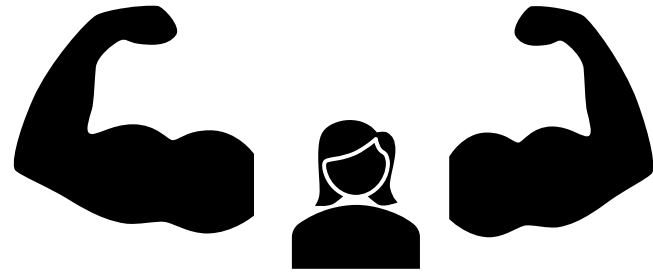
공지는~~~ 회의 제안 과 회의 안건 제시 입니다!

* 불.....ㅎ 일 경우에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고 프로젝트를** 진행할것인가? *

(피움을 먼저 할지, 커메를 먼저할지, 동시에 할지!) 인데요

결과가 나오는 **5월 29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인싸라서 시간잡기 넘나 힘들기때문에 회의는 온라인으로 진행할게요 ㅠ_
(스카이프 go)



일단 상반기 취업 준비중이신 주희님,
서류 합격 축하드리구요.
좋은 결과 기원합니다

지인님도 학업, 프로젝트 다 잘 되시길 기원합니다
(당연 잘되겠죠 ㅎㅎ)



합격 OR

더 크게 성장하라고 신이 내린 축복과 같은 큰 선물. 그 큰 선물에는 시련이라는 큰 포장지가 있어 우리를 더욱 한단계 나은 인간으로 만드는 발판 한마디로 탈락 ㅠ

일 경우에 저희팀이 어떻게 진행할지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다들 바쁘신거 고려하구있습니당〉

1. 합격 -> 태훈& 지인: 개발시작, 주희님:UI 제작 (데드라인 백십니다)

+ STS 에만 집중, 그에 맞는 솔루션 활동 시작

(역할 은 그대로 or 변경해도 됨)

(커리어 메이커는 안함 아니 못함)

2. ……ㅎ; -> 피움 개발과 커리어 메이커 2가지를 동시에 진행 OR

하나씩 순차적으로 진행

+ 본격적으로 피움의 지적 재산권 확보를 위한 사업자등록을 진행

(권리 확보는 이룰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태훈 : 사업자등록 / 어플 설계 & 관련인 미팅 & 서버 확보 및 기타 사전 정보 수집

주희 : 커리어메이커 기획 / C# 공부 / 유니티 공부 / 피움&커메 아트 리소스 제작

지인 : 태훈 오타확인, 태훈이 제대로 하는지 감시, 채찍질

은 농담이구요.

불..ㅎ 의 경우

저희에게 **2가지** 프로젝트가 준비되어 있는 만큼

지인님의 선택이 매우 중요해집니다.

홍진호

'지인사대천명'이라고...

홍진호

사람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다 하고

홍진호

하늘의 뜻을 기다린다

홍진호

제가 게이머할 때부터 항상 저는 그런 마음이었어요

더지니언스
게임의 법칙

못생겨서 가림

홍진호

내가 일단 최선을 다하면 무슨 결과가 나오든

홍진호

좋은 결과가 오지 않겠냐

홍진호

그게 바로 나한테 있어서 최고다

주희님은 확실한 분업이 되어있는 만큼(기획 팀장, 아트, UI디자인)
“선택지 없이”
그냥 먼지가 되시겠지만 (저도 그냥 먼지가 됩니다)

지인님의 리소스를 ‘잘’ 활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고,
고로 지인님께 우선 중요한 선택권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1. 커리어 메이커 클라이언트 개발 먼저, 이후 피움 (김태와 같이 셋이서 커메를 만듬)
2. 피움 클라이언트 개발 먼저, 이후 커메 (김태가 커메를 먼저 만들수도 있긴 함)
3. 둘다 동시에

셋은 각각 장단점이 있습니다

1. 커리어 메이커 클라이언트 개발 먼저 (주희, 김태와 같이 커메를 만듬)

장점 : 세명이 하나에 집중해서 개발하므로 뭔가 알콩달콩 재밌을것 같다

단점 : 피움 출시가 늦어진다 ㅠ_

2. 피움 클라이언트 개발 먼저

장점 : 자긍심을 가지고 일 할 수 있다. 가치있는 일에 노력하므로 성취감이 크고 개발 실력이 쑥쑥

단점 : 커리어 메이커 제작이 늦어지거나/ 제작에 참여하기 힘들 수 있다. (피움 클라 제작이 장난아니므로)

3. 둘다 동시에

장점 : C# , 유니티 , 포토샵, 자바, 안스 , IOS 개발까지 방학 기간동안 엄청난 성!장 + 포폴 어필 가능(단시간에 학습)

단점 : 불가능

저는 뭐 어떻게 되던 솔직히 상관 없습니다
그치만 **피움은 무조건 상용화를 하고싶고,**
커리어 메이커도 꼭 만들고싶어요. 귀여워..

참고: 지금 하던 게임 개발 프로젝트는 드랍시켰습니다 -> 여유 완전 생김 ㅎ

(이유: 다 초보라 저 혼자서 개발 외에 해야하는게 너무 많아서 폭파시키고 뛰쳐나옴)

결론

지인님께서 현재 학업 상황과, 현실적인 조건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의견을 내 주세요!

주희님도 마찬가지로 의견을 내 주세요.

특히 주희님의 경우는 취업에 성공하여 출근할 경우도 고려해서, 향후 일정과 기타 계획을 PD/PM 인 저에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 이전 프로젝트 개발을 위해 정말 시간을 모두 정리해뒀는데, 드랍시켰기때문에 일정이 텅 텅 비어있습니다. 여러분들께 맞출 수 있어요!